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호박이랑 양배추 놓고 갑니다.”  
 “문어 가져갑니다. 이것 넣어 두신 분, 복 받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청중들의 반응을 살핀 후) 이것은 음식 나눔 운동의 하나인 길거리 냉장고 프로젝트 방명록에 적혀 있는 말들입니다.  
 얼마 전 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뉴스에서 접하면서 공동체 의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나눔 운동과 연탄은행을 소개하면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식 나눔 운동에는 앞서 언급한 길거리 냉장고와 미리내 가게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길거리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는 길거리 냉장고 운동을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음식 낭비를 막으려는 친환경적 목적이 중심이 되어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목적보다 음식으로 정을 나누고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내 가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미리내 가게에서는 먼저 온 손님이 앞으로 올 누군가를 위해 미리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음식이 먹고 싶지만 음식값을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겠지요?  
 다음으로 연탄은행은 뜻있는 사람으로부터 연탄값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어 주는 운동입니다. 연탄은행은 겨울에 빙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지대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감상하시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낭송 음성을 들은 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에 나온 연탄채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위 발표를 위해 학생이 세운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용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며 화제를 제시해야지.
- ②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대상의 문제점을 드러내야지.
- ③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살펴봐야지.
- ④ 매체를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지.
- ⑤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조화해야지.

2.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에 관한 메모이다. ㉠~㉡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듣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숙한 공동체 의식>

I. 음식 나눔 운동

(1) 길거리 냉장고

- 독일에서 친환경 운동으로 시작됨
- 이웃 간의 유대를 목표로 함
-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 ㉠

(2) 미리내 가게

- 음식 값을 선불로 지급함
- 손님과 주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

b

(1)은 상호 나눔의 방식이고, (2)는 일방향적 기부의 방식이군. .... c

II. 연탄은행

- 고지대 노인 가구에 도움이 됨
- 빙판길에서 걷기 힘들어 하셨던 동네 할머니를 부축해 드린 일이 떠오르는군 ..... d
- 나도 용돈을 아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 e

- ① ㉠로 보아,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b로 보아,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c로 보아, 정보들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d로 보아, 발표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지으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e로 보아, 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동물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찬반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 저는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은 야생과는 다른 사육 환경과 관람객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생리적 고통에 시달려 번식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동물원의 동물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인간들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동물원은 없어야 합니다.

**학생 2** : 저는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은 사람들에게 동물 세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보호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는 생태 교육의 장입니다. 또한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체를 관리하거나 야생 동물의 생리 및 행동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동물원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제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1** : 동물 종 다양성을 위해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호라는 명목하에 동물원에 가두는 것은 동물의 야생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동물들의 동물권은 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생 2** : 서식지의 환경 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들의 경우, 동물원이 번식과 생존을 유지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 주장처럼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의 권리를 모두 신경 쓰는 것은 동물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며, 오히려 동물의 습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 1** : [가]

3.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대상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타당한가를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② 어떤 성과를 제시하고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적절한지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③ 어떤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④ 어떤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⑤ 어떤 현상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일반화할 수 있는 원리를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4. 토론의 흐름에 따라 상대측을 반박하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각 동물들의 습성에 맞는 동물원 시설이 필요한데, 모든 동물들의 습성을 고려하여 동물원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② 공공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 시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개선이 가능할 텐데, 동물원 측에 관람 수익만으로 시설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③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 동물들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자체가 생태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물원의 교육적 효과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 ④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중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해당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서는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⑤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동물권을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 동물을 과잉보호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의 발언을 왜곡한 것입니다.

5. 다음은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얼마 전 국립생태원에 갔을 때 열대관, 사막관 등 기후대별로 전시관을 구성한 에코리움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오늘 이 토론은 그곳에서 보았던 동물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토론의 쟁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동물권에 관한 것이었다. ㉢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은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 지금까지 동물원이 해 왔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종의 번식과 생존 유지를 위한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열악한 시설이나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동물권이 경시되는 동물원이 이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 원래의 서식지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이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동물원을 꿈꿔 본다.

- ① ㉠ :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시작하였군.
- ② ㉡ : ‘학생 1’의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이군.
- ③ ㉢ : ‘학생 2’의 입론의 전제라고 볼 수 있군.
- ④ ㉣ : ‘학생 2’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군.
- ⑤ ㉤ :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군.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쓰기**  
■ **학생의 초고**

선진국과 제3세계 간의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적정기술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적정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적정기술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뜻한다. 기술의 독점과 집적으로 인해 개인의 접근이 어려운 첨단기술과 달리 적정기술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비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적정기술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는 자립적 삶의 방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정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당시 일어난 귀농 열풍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적정기술에 대한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면서 국내에서 활용되는 적정기술은 난방 에너지 문제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열 온풍기·온수기, 생태 단열 등이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의 적정기술이 에너지 문제에 집중된 이유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수요 1억 kW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게다가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2011년 이후 매년 대규모 정전 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삶의 자립성을 추구하는 적정기술은 환경오염과 대형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 적정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제기를 위해 화제의 등장 배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 ② 화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③ 화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조되는 개념을 제시한다.
  - ④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 화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보여 준다.
  - ⑤ 논지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제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7. 윗글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전략〉	〈실행 계획〉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의 화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시작한다.	→ 도입에서 ‘우리나라 적정기술의 현황과 과제’가 발표 화제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겠어. ……… ①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며 전달 내용을 조절한다.	→ 적정기술의 의미를 아는지 질문하고 청중의 반응에 따라 설명 내용을 조절해야겠어. ……… ②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귀농의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수치화한 그래프를 활용해야겠어. ……… ③
생생한 전달을 위해 적절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적정기술을 활용한 국내의 성공 사례를 동영상 자료로 보여줘야겠어. ……… ④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하도록 화제와 청중의 관련성을 부각한다.	→ 적정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뤄야겠어. ……… ⑤

8.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A씨는 난방비 부담을 느끼던 중 버려진 나무를 싼값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난방장치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무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열효율을 높인 난방장치를 만들어 집에 설치하였다. 또한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 모임에서 이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나) 폴 폴락(Paul Polak)은 제3세계의 빈농들에게 페달 펌프라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빈곤층을 소비자로 보는 시장 지향적 관점에서 구현된 적정기술은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적정기술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적정기술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조 건> —

○ (가)로부터 ㉠을 구체화할 것.

○ (나)에서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적정기술은 소비 중심 사회에서 근검과 절약을 권장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 지향적 삶의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
- ② 적정기술의 상품화는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만든다. 결국 이는 적정기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 ③ 적정기술은 자연을 보존하고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아 적정기술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 ④ 적정기술은 주어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단, 시장 지향적 관점이 적용된 적정기술의 경우 진정한 의미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⑤ 적정기술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적정기술의 상품화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청소년 경제 캠프에 다녀온 학생들이 작문 계획에 따라 글을 쓰려고 한다.

**[학생 1의 작문 계획]**

- (가) 청소년 경제 캠프에서 배운 내용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적절한 속담을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계획]**

청소년 경제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중심으로 캠프 참여를 권유하는 글을 쓴다.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계획]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대인의 경제 교육 - 자녀에게 주는 용돈, 0달러!
- ‘경제 문맹’의 위험성

- 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경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 문맹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② 유대인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초년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우면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검소한 삶의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다.
- ③ 유대인과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잘못된 경제관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맹으로 인해 생겨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 ④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잘못된 소비 습관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 문맹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으뜸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경제 교육은 한참 뒤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 ⑤ 유대인은 자녀에게 용돈을 스스로 벌게 하며 경제관념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이 없이 자란 사람은 경제 문맹이 되어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계획]에 따라 쓴 글이다. ‘학생 2’가 사용한 작문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용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있나요? 용돈 받을 날은 멀었는데 벌써 용돈이 떨어져서 고민한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청소년 경제 캠프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 캠프라고 해서 지루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부에서는 경제빙고, 경제퀴즈지존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모의투자, 물가체험, 청소년 경제영웅전 등의 경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제생활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제 관련 의사 결정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제 캠프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경제가 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경제 활동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용돈 기입장 작성이 단순히 소비 항목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제 활동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올바른 경제 습관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유용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용돈 관리는 한 가정의 가계부와 같고 한 나라의 재정 관리와 같습니다.

알뜰살뜰 여러분만의 용돈 관리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청소년 경제 캠프에서 친구들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해 주십시오.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청소년 경제 캠프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캠프의 일정을 진행 순서에 따라 소개한다.
- ② 캠프의 목적을 밝히면서 캠프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
- ③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며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 ④ 올바른 경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 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 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밝힌다.

11.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각 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ㄴ’은 [ㄴ]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제19항	제29항
①	심리[심니]	두통약[두통낙]
②	점령[점녕]	상록수[상녹쑤]
③	콩엿[콩녘]	한여름[한너름]
④	국물[궁물]	눈요기[눈뇨기]
⑤	종로[종노]	물난리[물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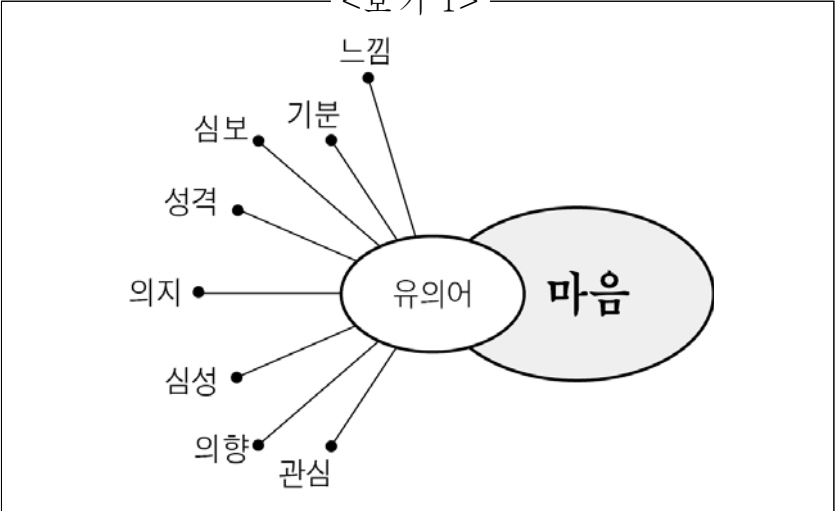
12. <보기>의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을 수정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원래의 문장	검토 내용
㉠	약은 약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조사를 잘못 사용함.
㉡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러웠다.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음.
㉢	그의 장점은 모든 일에 성실하다.	
㉣	철수는 사과와 배 두 개를 먹었다.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됨.
㉤	기태는 아름다운 은영이의 목소리를 좋아한다.	

- ① ㉠: 약은 약사께 상의하십시오.
- ② ㉡: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
- ③ ㉢: 그의 장점은 모든 일에 성실하다는 것이다.
- ④ ㉣: 철수는 사과 한 개와 배 한 개를 먹었다.
- ⑤ ㉤: 기태는 은영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좋아한다.

13. <보기 1>은 ‘마음’의 유의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 2>의 ‘마음’을 유의어로 바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

- 그는 ㉠마음이 곱고 바르다.
- 아이가 공부에는 ㉡마음이 없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 그는 이번 일을 성사시키려는 ㉢마음을 보였다.
- 그는 친구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상했다.
- 나를 만날 ㉤마음이 있으면 여기로 와.

- ① ㉠은 ‘타고난 마음씨’를 의미하므로 ‘심성’으로 바꿀 수 있다.
- ② ㉡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을 의미하므로 ‘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
- ③ ㉢은 ‘마음을 쓰는 속 바탕’을 의미하므로 ‘심보’로 바꿀 수 있다.
- ④ ㉣은 ‘대상·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감정’을 의미하므로 ‘기분’으로 바꿀 수 있다.
- ⑤ ㉤은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의미하므로 ‘의향’으로 바꿀 수 있다.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리다<sup>1</sup> ㉠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한다.

¶ 그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드디어 만났다.

그리다<sup>2</sup> ㉡ 동사 【㉢】

① 연필,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그와 닮게 선이나 색으로 나타내다.

¶ 그가 약도를 그렸다. / ㉢

② ㉣

¶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 이 소설은 서민 생활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그림다 ㉣ 형용사

① 【…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림다.

② 어떤 것이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 ㉣

- ① ㉠에 들어갈 말은 ‘동사’이다.  
 ② ㉢에 들어갈 말은 ‘…을’이다.  
 ③ ㉣에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를 넣을 수 있다.  
 ④ ㉣에 ‘생각, 현상 따위를 말, 글, 음악 등으로 나타내다.’를 넣을 수 있다.  
 ⑤ ㉣에 ‘한동안 쉬었더니 돈 몇 푼이 그림다.’를 넣을 수 있다.

15.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世·생宗중 御·영製·정 훈·훈民민正·정音음

나·랏:말·쓰·미 ㉠ 中·중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힐·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  
 ·고·져 ·홍 ·배 이·셔·도 ㅁ·춤·내 ㉡ 제 ㉢ ·쁘·들 시·러 퍼·디  
 :문·홍 ㉣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  
 ·겨 ·새·로 ·스·물·여·둑 字·종·를 ㅁ·ㅁ·노·니 :사·름·파·다 :히  
 ·여 :수·비 니·겨 ·날·로 ·쑤·메 ㉣ 便·편·安·안·하·키 하·고·져 홍 썩  
 ㄹ·미·나·라

—『월인석보(月印釋譜)』, 세조(世祖) 5년(1459) —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  
 없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  
 이다.

- ① ㉠: ‘에’가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② ㉢: ‘ㅣ’가 주격조사로 사용되었군.  
 ③ ㉣: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였군.  
 ④ ㉣: 이어적기가 사용되었군.  
 ⑤ ㉣: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이 쓰였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철학자 후설(Edmund Husserl)이 말하는 ‘의식 주체’는 서양 근대 철학의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후설에 의하면 의식 주체는 다른 것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현존하는 것이며, 사유의 대상인 객체에 비해 우월하며 본질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식 주체인 정신은 곧 ‘나’의 본질로,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 간주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이원 대립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주체와 객체가 우열 관계 내지 착취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체 개념의 정립이 17, 18세기 자본주의의 소유 이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원 대립과 위계의 가치 질서를 만들어 낸 후설의 의식 주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데리다(Jacques Derrida)는 ㉡ 차연이라는 개념을 ㉢ 개진한다. ‘차연’을 뜻하는 신조어 ‘디페랑스(différance)’는 ‘차이(差異)’와 ‘연기(延期)’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전에서 어떤 단어(A)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단어(B)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와의 차이에 의해 그 의미가 ㉣ 구별되면서 끊임없이 연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리다에게 주체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드러나고 그 의미에 대한 최종 해석은 계속 연기되는 것이다.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은 단순히 의식 주체에 대한 대립 개념이 아니라, 의식 주체의 절대적 위상 속에 ㉤ 은폐되어 있는 객체의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개념이다. 데리다가 의식 주체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에서는 주체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은폐하고 그 자체로 고정 불변의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은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절대 주체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욕망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연 개념을 통해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주체란 허구이자 환상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주체의 부재를 확인하고, 주체는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자 자기 동일성을 지닌 우월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데리다는 그 어느 것에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절대적 진리의 ‘있음’을 ‘없음’으로 ㉥ 대체했다. 그의 사상은 대상마다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다원적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6.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신에 대한 후설의 인식
- ② 데리다의 사상이 갖는 의의
- ③ 의식 주체 개념이 지닌 문제점
- ④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의 정립 계기
- ⑤ 주체의 자기 동일성에 대한 데리다의 견해

17. 윗글의 ㉡ 차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 ② 객체는 주체로부터 비롯되고 주체와의 본질적인 차이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 ③ 주체가 지닌 절대적 지위는 나머지 다른 것들을 구별하는 확고한 기준이 된다.
- ④ 주체가 그 자체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주체의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모호성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18.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식민주의란 약육강식을 근간으로 삼는 차별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힘이 센 나라(종주국)가 자신보다 약한 나라(식민국)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물적·인적 자원을 약탈하고, 그 곳을 지배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서양 근대 철학은 이러한 식민주의의 이념적 뒷받침이 되었다.

- ① 식민국이 스스로 열등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식민주의를 해체할 수 있겠군.
- ② 종주국은 식민국과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겠군.
- ③ 식민주의는 종주국을 절대적 주체로 설정하면서 식민국의 가치를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이군.
- ④ 종주국의 무력 침략은 종주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식민주의의 문제는 상대적 차이를 지닌 나라들의 관계를 위계질서를 지닌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겠군.

1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 ②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씀.
- ③ ㉢: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 ④ ㉣: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
- ⑤ ㉥: 다른 것으로 대신함.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익이 분화되고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 체제로,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를 ㉠ 도출해 내기 위해 의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는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적의 입법 과정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 ‘사전적 관리기능’과 이미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 ‘사후적 관리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적 관리기능은 입법을 위해 의제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작동하며, 입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전적 관리기능에서는 입법이나 정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 기관이 갈등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률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내용이 부정적이라면 입법은 무산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여 분석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 등 공적 주체는 물론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이 ㉣ 수반되어야 한다.

사후적 관리기능은 이미 발생하여 현재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 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우선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 조사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갈등의 당사자들이나 시민 대표단이 포함된 참여 기구를 구성한다. 이때 참여 기구의 인적 구성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표성과 중립성이 ㉥ 담보되어야 한다. 참여 기구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숙의를 통해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입법적 조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법의 방향과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이를 토대로 갈등 현안에 대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라는 입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예산상 조치를 하거나 갈등 당사자들에게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회가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최적의 입법 과정을 ㉦ 정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20.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법 과정에 시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 ② 사회 갈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갈등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③ 입법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 ④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입법 과정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가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을 인정함으로써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② ㉠은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은 예산상 조치나 갈등의 중재안 마련에 목적이 있다.
- ③ ㉠은 입법 후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은 입법 이전에 생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 ④ ㉠의 과정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을, ㉢의 과정에서는 정부 등 공적 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한다.
- ⑤ ㉠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이고, ㉢은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국은 경제 위기 이후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었다. 의회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폭넓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또한 의회는 각 정당의 대표, 보험회사, 시민단체,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로 ‘의료보험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숙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제도를 국가의료보험제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의회는 이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법안을 지지하였다.

- ① 의회는 갈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참여 기구를 구성하였군.
- ② 의회가 입법 의제를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사회 갈등이 발생하였군.
- ③ 의회는 사회 갈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군.
- ④ 의료보험대책기구의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군.
- ⑤ 참여 기구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의회의 입법적 조치로 이어졌군.

23.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끌어
- ② ㉢: 뒤따라야
- ③ ㉤: 가져오기
- ④ ㉥: 나누어져야
- ⑤ ㉦: 바로 세우는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연성 음악(Aleatoric)’이란 주사위를 뜻하는 라틴어 ‘알레아(Alea)’에서 유래된 용어로, 서양음악의 전통적 통념에서 벗어나 작곡이나 연주 과정에 우연성을 도입함으로써 불확정성을 추구하는 음악을 일컫는다. 우연성 음악은 현대음악이 지나치게 추상화되거나 정밀하게 구성된 음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는데, 대표적인 음악가로 케이지와 슈톡하우젠이 있다.

케이지는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무작위(無作爲)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하는 동양의 주역 사상을 접한 후, 작곡에 있어 인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케이지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우연의 요소를 도입하여, 음의 높이나 강약 또는 악기나 음악 형식을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연적 방법을 사용한 케이지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1951년 작곡된 <피아노를 위한 변화의 음악>이 있다. 케이지는 이 곡을 작곡할 때 작품 전체의 형식 구조만을 정해 놓고 세 개의 동전을 던져 음의 고저와 장단, 음가 등을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곡의 전체 구조는 합리적 사고에 의해, 세부적인 요소는 비합리적인 우연성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슈톡하우젠은 음악의 우연성이 통계적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음악적 요소들의 관계에서 가변성이 형성될 때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음악처럼 고정된 악보를 제시하여 정해진 연주 방법과 진행 순서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여러 악구만 제시하고 연주자가 이를 임의로 조합하는 우연성에 의해 연주해도 얼마든지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슈톡하우젠의 <피아노 소품 XI>은 19개의 단편적인 악구로만 구성된, 단 한 페이지의 악보로 된 작품이다. 각 악구의 끝에는 박자, 빠르기, 음의 세기 등과 같은 지시어가 적혀 있는데, 연주자는 악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생각한 박자, 빠르기, 음의 세기로 연주를 시작하고, 해당 악구의 연주가 끝나면 임의로 선택한 다른 악구로 이동한다. 이때 각 악구의 뒷부분에 다음 악구를 연주하는 방식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악구는 바로 직전 악구의 지시어대로 연주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악구를 두 번째로 다시 연주할 때에는 해당 악구 앞부분의 괄호 안에 적힌 옥타브 변경 지시에 따라 연주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어느 한 악구를 세 번째로 연주하게 되면 끝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처음에 선택한 악구를 연달아 세 번 연주하고 끝내는 짧은 연주 방법부터, 모든 악구를 두 번씩 반복한 후 마지막에 임의의 한 악구를 선택하여 끝내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우연성 음악**은 하나의 작품이 작곡되고 연주되는 과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창작 과정과 이를 실현하는 연주자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때문에 음악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 **우연성 음악**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곡가와 연주자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연주자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 ③ 누구나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
  - ④ 음악의 창작과 실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확정성이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⑤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곡과 연주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5. ‘케이지’가 ㉠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기 위해
  - ② 작품 전체 형식 구조의 합리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 ③ 작품의 음악적 요소들을 동일한 횟수로 반복하기 위해
  - ④ 작품의 의미가 주역 사상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⑤ 작품 진행 과정에서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26. [가]에 제시된 방법으로 <보기>의 악보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첫 악구 연주 방법 : B를 선택, 2/4박자, 보통 빠르기로  
○ 연주 순서 : B → A → E → C → B → A → C → D → A

A   
(한 옥타브 낮게) 4/4박자, 느리게

B   
(한 옥타브 높게) 2/4박자, 매우 빠르게

C   
(한 옥타브 높게) 2/4박자, 모든 박 악센트

D   
(두 옥타브 낮게) 2/4박자, 아주 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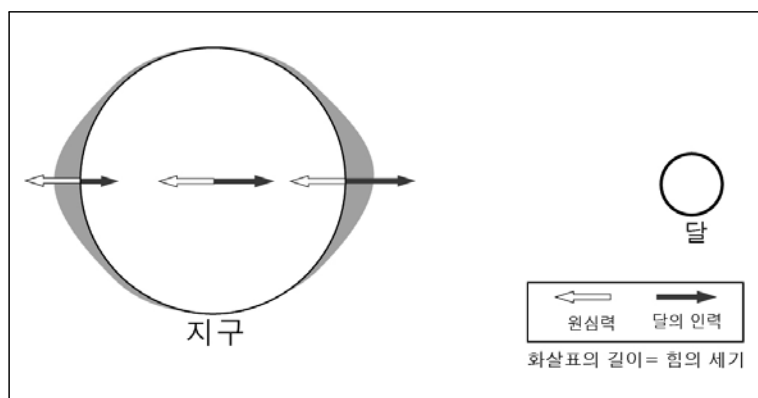
E   
(한 옥타브 낮게) 3/4박자, 보통 빠르기

- ① 악구 A는 모두 2/4박자로 연주되는군.
- ② 악구 B와 D는 모든 박을 악센트로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군.
- ③ 악구 C는 처음에는 ‘보통 빠르기’로, 두 번째는 ‘느리게’로 연주되는군.
- ④ 악구 D 다음에 A가 아닌 C를 선택해도 연주는 끝나겠군.
- ⑤ 악구 E는 원래의 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으로 연주되는군.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호 화석에 나타난 미세한 성장선을 세면 산호가 살던 시기의 1년의 날수를 알 수 있다. 산호는 낮과 밤의 생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의 변화가 성장선에 나타나고 이를 세면 1년의 날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웰스는 약 4억 년 전인 중기 데본기의 1년이 지금의 365일보다 더 많은 400일 정도임을 알게 되었다. 1년의 날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구의 하루가 길어졌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지구의 하루는 왜 길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은 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달 또한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달은 태양보다 크기는 작지만 지구와의 거리는 태양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미치는 영향은 달이 더 크다. 달의 인력은 지구의 표면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힘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달과 가까운 쪽에는 크게, 그 반대쪽에는 작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지구 표면은 달의 인력과 지구-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 그림처럼 양쪽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때 달과 가까운 쪽 지구의 ‘부풀어 오른 면’은 지구와 달을 잇는 직선에서 벗어나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하루 만에 자전을 마치는데 비해 달은 한 달 동안 공전 궤도를 돌기 때문이다. 달의 인력은 이렇게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가는 부풀어 오른 면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당기고, 그로 인해 지구의 자전은 방해를 받아 속도가 느려진다. 한편 지구보다 작고 가벼운 달의 경우에는 지구보다 더 큰 방해를 받아 자전 속도가 더 빨리 줄게 된다.

이렇게 지구와 달은 서로의 인력 때문에 자전 속도가 줄게 되는데, 이 자전 속도와 관련된 운동량은 ‘지구-달 계’\*\* 내에서 달의 공전 궤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존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달의 공전 궤도는 점점 늘어나고, 달은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구의 자전 주기는 매년 100만 분의 17초 정도 느려지고 달은 매년 38m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 주기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지구의 1년의 날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느려지더라도 하루가 25시간이 되려면 2억 년은 넘게 시간이 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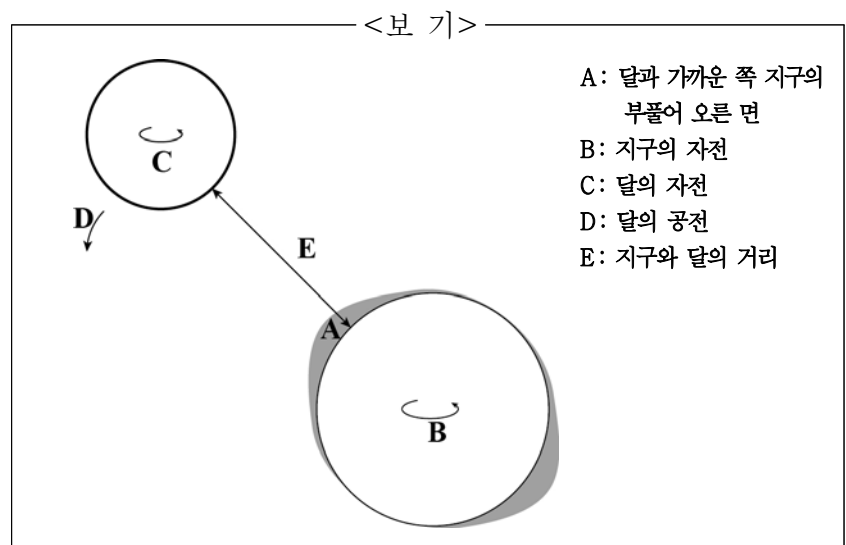
\* 지구-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 지구-달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원운동에 의해 생기는 힘으로,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힘의 크기는 동일함.

\*\* 지구-달 계: 태양이나 다른 천체의 영향력이 없다고 가정한, 지구와 달로 이루어진 계.

2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에 대한 이론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②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 ④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병렬식으로 나열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⑤ 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E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의 인력과 지구-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으로 A가 나타난다.
- ② B의 주기가 D의 주기보다 짧아 A가 지구와 달을 잇는 직선에서 벗어나 앞서게 된다.
- ③ B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나간 A를 달의 인력이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끌어당긴다.
- ④ 지구의 인력이 달에 작용하여 C의 속도가 느려진다.
- ⑤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D의 궤도와 E는 점점 줄어든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력의 크기는 지구와 달의 거리에 비례하여 커지는군.
- ②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질수록 1년의 날수가 늘어나는군.
- ③ 달은 지구와 멀어지며 ‘지구-달 계’의 운동량을 줄이게 되는군.
- ④ 달의 인력이 지구에 미치는 힘은 지구의 모든 부분에 일정하게 작용하는군.
- ⑤ 달과 반대쪽의 지구 표면이 부풀어 오른 것은 달의 인력보다 지구-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처음의 한아버이 살림살이하려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경작하니  
올벼논 텃밭이 여드레 갈 정도이다  
자손(子孫)에 계승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웁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얹혀들어 흘깃흘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살림살이가 줄어지게 되었는데  
엿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이 탕진하니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여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나)  
교활한 놈 거미는 족속도 번자(繁滋)하다\*. 누가 저희에게 준  
기교인가, 망사로 둥근 배를 살찌운다. ㉠ 한 마리 매미 있어 그물  
에 걸리니 그 소리 너무 슬펐다. 내 차마 못 들어 풀어 날려 보냈  
다. 곁에 있던 사람이 힐난(詰難)하여 말했다.  
이 둘은 똑같이 작은 벌레다. 그런데 거미가 그대에게 무슨 손  
해를 끼쳤으며 매미는 또 그대에게 무슨 이익을 더했는가? 매미가  
살면 거미는 굶는다. 한쪽은 그대를 덕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한쪽은 반드시 원통해 할지니, 누가 그대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매미를 풀어 주었는가?  
나는 처음에 이맛살을 찌푸리고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가 잠깐 뒤에 다음과 같은 한 마디 말로써 그가 의심하는 바를 풀  
어 주었다.  
㉡ 거미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매미는 자질이 청백하다. 배부름  
을 피하는 거미의 뜻은 끝이 없지만, 이슬이나 먹는 매미의 창자  
야 달리 무슨 피할 일이 있겠는가? 탐오(貪汚)\*로써 청렴을 꾀박  
하니 내 정으로는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거미는 어찌하여 그토록 가는 실을 토해 내는가? ㉢ 비록 이루  
(離婁)\*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이 아둔한 매미가 어찌 능  
히 살필 수 있겠는가? 날아 지나려다 갑자기 걸리니, 날개를 퍼덕  
일수록 더욱 얹힐 뿐이다.  
저 번잡한 파리 떼 어지러이 날아 썩은 내에 비린내 쫓다가, 경  
망스러운 나비 떼 꽃을 탐하여 바람 따라 쉽 없이 오르내리다가,  
㉣ 비록 그물에 걸려 환(患)을 만난다 한들 누구를 탓하겠는가?  
본래 그 재앙이 그들의 구하는 바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매미는 홀로 남과 더불어 쫓은 게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환란(患亂)을 만나 얹힌 바 되었는가? 그래 내 그 전박(纏縛)\*을  
풀어 주며 한 마디 당부를 했던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주무(綯繆)\*를 떠나 교림(喬林)\*을 향해 좋이  
가거라. ㉤ 맑고 그윽한 좋은 그늘을 택하여 살되 자주 옮기지  
말아라. 그러나 거미가 또 엿볼 것이니 오래 머무르지도 말아  
라. 사마귀가 네 뒤에서 노릴지도 모른다. 거취를 신중히 하여  
라. 그런 뒤에야 잘못이 없으리라.”  
- 이규보, 「방선부(放蟬賦)」-

\* 고공 : 머슴.  
\* 번자하다 : 번식이 성하다.  
\* 탐오 : 욕심이 많고 하는 것이 더러움.  
\* 이루 : 옛날 중국에 있었다는 눈 밝은 사람.  
\* 전박 : 얹혀서 묶임.  
\* 주무 : 얹힘.  
\* 교림 : 키가 큰 나무로 이루어진 숲.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깨우침을 주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를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진왜란 직후 허전이 쓴 「고공가」는 국사(國事)를 한 집안의 일에 비유하여, 왜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당과 싸움만 일삼는 무능하고 부패한 당시 신하들의 각성을 촉구한 작품이다.

- ① ‘큰 집’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처음 시작한 곳으로, 새로 건국한 조선을 의미하겠군.
- ② ‘근검(勤儉)’은 옛 고공들이 지녔던 덕목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마음을 다투는 듯’은 요사이 고공들의 다툼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화강도(火強盜)’는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진 원인으로,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적을 의미하겠군.
- ⑤ ‘김가 이가 고공들’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일으켜야 할 존재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새로운 인재를 의미하겠군.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매미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나’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두 대상의 속성을 대조하여 곧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고사 속의 인물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삶에 대한 ‘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나’의 이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학문 수양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33. <보기>에 대해 (가)와 (나)의 화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초나라의 충신인 굴원은 진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초나라의 왕을 유인하여 감금하자, 자신의 왕을 구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굴원은 이익에 눈이 먼 초나라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후 초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 ① (가)의 화자는 신하들이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나라가 쇠락한 것에 주목하겠군.
- ② (가)의 화자는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굴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군.
- ③ (나)의 화자는 덕과 지혜를 갖춘 신하를 알아보지 못한 초나라 왕을 비판하겠군.
- ④ (나)의 화자는 탐욕스러운 존재에 의해 벼슬에서 물러난 굴원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겠군.
- ⑤ (나)의 화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대상을 공격하는 진나라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겠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차제\*에 저도 사직원을 던져 버릴까 합니다.”  
두 잔째의 커피를 다 비우고 나서 나는 우물쭈물 서두를 꺼냈다.  
“인마, 그 따위 징징 쥐어짜는 소리 할려구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했어?”  
강 선배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닙니다. 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진심입니다. 갑자기 ㉠ 서울 생활이 싫어졌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그만두면 뭐 할래?”  
“어머니한테 가서 모처럼 효자 노릇 좀 하죠. 직장이라니 숨통 딱 막히는 분위기에서 구차스럽게 연명하기보다는 차라리 ㉡ 농사짓는 쪽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강 선배가 불시에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야 인마, 농사는 뭐 아무나 다 짓는 것인 줄 알아? 도대체 ㉢ 니가 바라는 서울 생활이란 게 어떤 건데?”

“그건 말입니다, 그건 저…….”

그걸 막상 말로써 표현하려니 혀가 잘 돌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더듬거린 후에야 간신히 이렇게 대답했다.

“이른테면 말이죠, 대처에 사는 사람들답게 도량이 넓어서 남의 약점도 감싸줄 줄 알고, 안목이 높아서 진실하고 허위를 정확히 가릴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존중할 줄도 알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뒤따르고…….”

“허허허, 그건 서울 얘기가 아니지. 넌 지금 ㉣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

강 선배는 한바탕 또 껄껄거리다가 느닷없이 탁자 너머로 팔을 뻗어 내 가슴을 톡 쳤다.

“그런 따위 감상적이고 나약한 자세로 인생을 보다가는 넌 결국 서울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 ㉤ 어급니를 악물고 뼈 빠지게 뛰어도 겨우 제 밥 찾아 먹을까 말까 하는 세상이야. 날 보라구, 날! 난 말이지, 이번에 당한 수모를 결단코 잊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꺾이지도 않을 거야. ㉥ 절치부심에 다 와신상담을 꺾뽕해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되로 받은 것을 상대방한테 말로 갚아 버릴 작정이지.”

[중간 부분의 줄거리] ‘나’는 매일 들르던 다방에서 볼 때마다 궤궤죄죄한 행색으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표에 대해 문의하는 이 씨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나’는 그와 대화할 기회가 생기지만 열대어 얘기만 듣다가 헤어진다. 한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 과장을 회사에서 쫓아낸 ‘나’는 회사 생활이 불편하기만 한 가운데 이 씨의 전화를 받게 된다.

“난 오늘 여길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다니, 아니 그럼 기어이 로스앤젤레스로…….”

“아닙니다.”

멋쩍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쪽은 포기한 지가 벌써 며칠 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고향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이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서울입니다.”

“서울요?”

“네, 서울이 내 고향이지요.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면 아마 달회 씨를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여길 떠나도록 내 등을 힘껏 떠밀어 준 달회 씨한테 절대로 그 고마움 잊지 않을 작정입니다.”

더 붙잡고 마잘 겨를도 없이 찰칵 하고 전화가 끊겼다. 이 씨의 말뜻을 헤아려 보느라고 나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을 생각도 미쳐 못 하고 있었다. ㉧ 고향인 서울로 가기 위해서 그는 시방 그 서울을 떠나려 하고 있다. 그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나는 한동안 난감한 기분이었다.

고향이라…….

그러자 이 씨가 말하던 그 고향의 의미가 갑자기 확연한 모습으로 눈앞에 육박해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는 그런 고향이 아니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띤 다른 어떤 고향을 가리키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고향!

나 역시 **그 고향**에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나는 펄떡 깨달았다.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 다른 무엇보다도 고향 길의 초입에 해당하는 손 과장의 관문부터 우선 뚫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손 과장의 부인이 들어 있는 대학병원의 입원실 번호를 물어보려고 당장 눈에 안 띄는 꺾 선배의 모습을 사무실 안에서 두리번두리번 찾기 시작했다.

-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羅城)\*」-

\* 차제 : 때마침 주어진 기회.  
\* 나성 : ‘로스앤젤레스’의 한자음 표기.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의 제시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과 ㉢의 불일치로 괴로워하고 있다.
- ② ‘강 선배’와 ‘나’는 둘 다 ㉠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 ③ ‘강 선배’는 ㉢에 대한 ‘나’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나’는 ㉢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은 ‘강 선배’가 ㉢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세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6. 윗글의 **그 고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을 둘러싼 객관적 현실이 변화된 공간
- ②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부딪쳐 나가는 공간
- ③ 가족 관계를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 ④ 현실로 인한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
- 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용적 표현을 통해 서울 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② ㉡ : 한자성어를 사용하여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 감각적으로 구체화된 표현을 통해 ‘이 씨’의 심경 변화가 ‘나’로 인해 생겼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가 ‘이 씨’의 의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가 결심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는 윗글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를 윗글과 연결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느 다방 수족관 옆자리에서 ‘나’는 ‘이 씨’와 만나고, ‘이 씨’가 열대어에 관해 말하는 상황이다.)

“에인절피시 ...(중략)... 바로 그 없어도 무방한, 오히려 없는 편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할 거추장스러운 **장식물**들은 굶주린 적들한테 제법 식욕을 돋우는 좋은 표적이 되곤 합니다. ...(중략)... 하늘나라에 있을 때나 천사지 이 혼탁하고 압박한 생존의 전쟁터에 내려오면 에인절피시도 볼 장 다 보는 겁니다.”

“키싱..... 참 재미있는 이름이지요. ...(중략)... 알고 보면 저놈들은 키스가 아니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중략)... 둘이서 다정하게 포옹하는 척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옆구리에다 **비수**를 들이대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수마트라는 ...(중략)... 동족끼리 맞붙는 싸움에서는 춘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 ① 에인절피시 :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를 비유한 것으로, 방황하던 ‘나’와 ‘이 씨’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
- ② 장식물 : 생존을 위해 경쟁이나 승패가 중시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삶의 방식을 비유한 것으로, ‘나’가 추구하는 사람다운 삶, 정직한 노력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 ③ 키싱 : 겉보기와 달리 속으로는 언제나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강 선배처럼 감상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 경우 ‘서울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 ④ 비수 : 대립과 경쟁 구도 속에서 상대를 해치려는 태도를 비유한 것으로, 강 선배가 느끼고 있는 ‘이번에 당한 수모’를 갚으려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 ⑤ 수마트라 : 치열한 경쟁을 하는 현대인을 비유한 것으로, 되로 받은 것을 말로 갚아줄 것이라 곱씹는 강 선배의 모습에서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어.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수가 몸이 곤하여 침석(寢席)에 의지하였더니 비몽사몽간에 한 노승이 와 이르되,  
“원수는 무슨 잠을 이리 자느냐? 승상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바빠 구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즉시 절도사를 청하여 전후 말을 이르고 진번 가는 거리를 물으니 천여 리라 하거늘, 마음이 바빠 급히 말을 몰아 나오니 벌써 동방이 밝고 일색(日色)이 비치는지라. 울적한 회포와 무궁한 화를 이기지 못하여 풍우같이 달려갈새, 벌써 오시(午時)가 되었는지라. 진번에 다다라 산 위에 올라 보니 어떤 노인을 밧줄로 묶어 수레에 싣고 나오니, 명패에 썼으되, ‘대국 반적곽충국이라.’ 하였거늘,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한편 슬프고 화가 치미는지라. 급히 둔갑을 하여 몸을 다섯 만들어 각각 갑주와 장검을 들리고, 육정육갑(六丁六甲)\*을 외워 천지 풍운을 일으키고 화살과 돌을 날리며 신장(神將)으로 군영을 습격하여 죽이게 하고 삼백육십 명의 사천왕을 불러 ‘좌우에 웅위하라.’ 하고 말을 몰아 적소검을 들고 큰 소리로 왈,

“무도한 역적은 나의 부친을 해(害)치 말라.”

하고 좌충우돌하니, 진번 장졸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적소검을 날려 좌우 무사를 베고 승상을 구하여 안전한 곳에 모시고 통곡 왈,

“부친은 정신을 진정하소서. 불초자 해룡이 왔나이다.”

하니, 승상이 혼미 중에 해룡이란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네 해룡이라 하니 반갑기 측량없고 슬프기 무궁하다. 네 어찌 알고 와서 나를 구하며 너의 모친도 평안하시냐? 전후사연을 말하라.”

㉠ 원수가 여쭙오대, 부친이 귀양가신 후 소자가 모친을 뵈시고 있삽더니, 부친을 뵈옵고저 모친을 하직하옵고 유배지로 향하옵다가 두문동에서 두 자사와 시랑을 만나던 말이며, 또 스승을 만나 술법 배운 말이며, 서번을 물리치고 부친의 귀양을 풀어주라는 천자의 명을 받아 공문을 가지고 설산도로 가다가 부친이 끌려간 소식을 듣고 진번으로 오다가 절도령에서 꿈꾸던 말이며, 모친이 죄인되어 궁중 노비 되었던 말을 세세히 고 하니, 승상이 듣기를 다 마침에 목메어 울며 왈,

“내 늦게야 너를 낳아 이다지 장성하여 국가 사직을 보호하고, 나를 풀려나게 하고, 또 오늘날 화(禍)를 면케 하니 어찌 하늘이 감동하시고 부처가 지시한 바가 아니리오?”

하며, 등을 어루만져 왈,

“지금 진번이 강성하여 토변과 합세하여 철관도사로 모사(謀士)를 삼고 목특으로 선봉을 삼아 중원을 치고자 하여 나를 붙잡아 달래어 너를 유인하고자 하매, 내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지경을 당하였거니와, 적장 목특은 만고명장이라,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며 못내 반기며 비회(悲懷)를 금치 못하거늘, 원수가 왈,

“부친은 안심하소서. 소자가 비록 무재(無才)하오나 적장은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칼을 들고 나서며 크게 외쳐 왈,

“진번왕은 내 칼을 받으라. 금일 너희를 물리치고 부친의 분(忿)을 씻으리라.”

하고 신장(神將)을 불러내어 함께 달려드니, 진번왕이 뜻밖에

신장을 만나매 몹시 놀라 한편 백마를 잡아 피를 사면에 뿌리고 풍백을 불러 풍운을 씻어 버리며, 제장 군졸을 불러 진을 치게 하고, 좌우에 생사문을 내고 진 앞에 숙정패(肅靜牌)\*를 내어 꽂고 군호(軍號)를 정제하며 선봉 목특을 불러 싸움을 돈우거늘, 원수가 살펴보니 굳음이 철통 같고 풍운이 절로 그치니 신장이 접전치 못하는지라. 해룡이 마음에 해오되, ㉡ ‘내 술법을 당할 자가 없더니 오늘날 진번에 이르러 나를 항거하고 신장을 물리치며 팔진도를 벌이니 실로 웅천도사의 말이 옳도다. 내 재주를 다시 행하리라.’ 하고 비를 뿌리니 사면이 다 바다가 되어 물이 넘치는지라. 원수가 몸을 솟구쳐 공중에 올라 외쳐 왈,

㉢ “너의 조그마한 재주와 용맹으로 어찌 나를 당하리오?”

하며 적소검을 드니, 화광이 충천하며 뇌성벽력이 진동하는지라.

철관도사가 대경하여 선봉 목특으로 나가 싸우라 하니, 목특이 말을 달려 외쳐 왈,

“적장 해룡은 헛장담 말고 빨리 항복하라. 너를 진중에 가두었으니 무슨 근심이 있으리오?”

하며 달려들거늘, ㉣ 원수가 바라보니 키는 십 척이요, 몸은 멍헝 같고 얼굴은 먹을 갈아 부은 듯하고 소리 웅장하여 짐짓 일대호걸이요, 만고명장이라. 심중에 해아리되 ‘철관도사 신통이 이리하고 또 적장이 용맹하니 쉽사리 잡지 못할지라. 이제 검술로 잡으리라.’ 하고, 적진을 살펴본 후에 적소검을 들고 목특으로 더불어 싸울새 짐짓 적수라. 삼백여 합에 승부를 결치 못하고 또한 화살과 돌이 비 오듯하니 원수가 가장 위급한지라. 가만히 진연을 외워 몸을 삼백에 나뉘 적진을 짓치고자 하더니, 적장이 또한 진연을 염하여 삼백 해룡을 막는지라. 종일토록 싸우다가 승부 없고 또한 기갈이 심한지라. 가만히 진연을 염하여 혼백을 감추고 변신하여 깃발을 적진에 던지니 완연히 원수라. 적장이 깃발과 싸울 적에 원수는 진 밖에 나와 녹림산으로 돌아오니 승상께서 묻기를,

“네 적진을 보니 어떠하더뇨?”

원수가 대답하기를,

㉤ “소자가 세상에 횡행(橫行)하여 대적할 자가 없더니, 오늘날 목특의 검술과 도사의 재주를 보니 실로 뛰어난지라. 천자의 구원병을 기다려 싸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승상이 염려함을 마지아니하더라.

[뒷부분의 줄거리] 원수는 녹림산을 떠나 전날 스승이 준 편지대로 부처와 용왕에게 제를 지낸다. 제를 통해 도력을 높인 원수는 구원병과 함께 적을 섬멸한다. 이후 부친의 원한을 풀고 모친과 재회한 원수는 훗날 위왕으로 봉해진다.

- 작자 미상, 「곽해룡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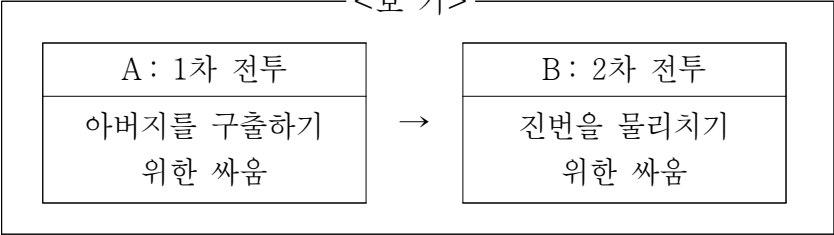
\* 육정육갑 : 둔갑술을 할 때 부르는 신장(神將)의 이름.

\* 숙정패 : 군령을 집행할 때 조용히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나무패.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현실적 요소를 삽입하여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위협을 예고하는 꿈을 통해 다음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 ④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교차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여 외부 도움을 요청할 만큼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를 얕잡아보는 발언을 통해 인물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인물의 시선을 통해 상대의 외양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41.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분기충천(憤氣衝天)한 ‘해룡’은 둔갑술을 발휘하고 풍운을 일으켜 적진에 있는 부친을 구한다.
- ② A에서 ‘해룡’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진번 군사들은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달아난다.
- ③ B에서 ‘진번왕’은 진영을 정비하여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자세로 ‘해룡’과의 싸움에 임한다.
- ④ B에서 ‘해룡’은 사방을 물바다로 만든 후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적진을 공격한다.
- ⑤ B에서 ‘해룡’은 적의 선봉인 ‘목특’과 싸움을 벌이며 난형난제(難兄難弟)의 재주를 겨룬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웅군담소설에서 탐색 구조는 결여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려는 여정을 통하여 충족에 이르는 ‘결여-탐색-충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여는 안정된 상태에 있던 주인공에게 결핍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며, 탐색은 이러한 결핍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충족은 결핍 상황이 해소되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 구조는 작품 전체에서 반복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영웅이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완결된다.

- ① 진번의 장수 목특과의 대결은 탐색의 시간을 연장시킨다.
- ② 꿈속에서 만난 노승으로 인해 충족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
- ③ 해룡에게 부친과의 이별은 결여이므로 부친과의 상봉은 충족으로 볼 수 있다.
- ④ 모친이 궁중 노비가 된 것은 탐색 과정 중 겪는 또 다른 결여로 볼 수 있다.
- ⑤ 해룡이 비범한 능력을 얻기 위해 스승에게 술법을 배우는 것은 충족에 해당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於口)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와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속이 짝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겉잎 되어

㉢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

\* 결구: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 알불: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 토막이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음.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계절의 순환에, (나)의 화자는 특정한 계절에 주목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나)의 화자는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세계를, (나)의 화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희망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여행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실향민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보며 깨닫게 된 자신의 내면을, (나)의 화자는 한 공간에서 대상을 지켜보며 터득한 삶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짧은 의문문과 평서문을 연달아 배치하여 표현함으로써 나무로부터 받은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삶의 모순에 대한 거부감을 열거와 영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구를 통해 몸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배추의 결구가 생기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 새로 알게 된 삶의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에게 자연은 창작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자연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배경이자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을 건네거나 감정을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에서 자연은 때로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 때로는 지친 삶을 위로해 주는 존재로, 때로는 감정이입의 소재로 나타나게 된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여행길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군.
- ② (가)에서 화자는 ‘내 안에 뿌리를’ 편 나무들의 여러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군.
- ③ (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나무는 화자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배추에게서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배추의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